



2025년 4월 첫째주일

“사사 옷니엘(II)”

사사기 3:7-11

찬양 :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

1. 본문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 담대함을 얻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결과, 메소보다미아 왕을 섬기게 되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옷니엘을 사사로 세우신 것은, 그가 갈렙의 신앙적 유산(DNA)을 지닌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랴트 세벨을 쳐서 점령할 만큼 용맹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모세 또한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훈련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4.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직분의 소중함을 믿고, 진심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섬기고 계신가요? 함께 나누어 봅시다.